

## “UMC 한인목회자 재파송불가 통보, 부당한 처벌적 조치”

### 한교총 이철구 회장 입장문 발표

UMC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는 최근 미 서부지역 한인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재파송불가 통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UMC 가주태평양연회는 지난달 서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3교회인 남가주주님의교회(이낙인 목사), 벨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목사)의 담임목사에게 ‘감독이 연회를 이끌고 가는 방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재파송불가를 통보했다.

한교총은 ‘기습적인 재파송불가 통보는 한인 목회자들이 UMC 감독과 연회의 진보적인 방향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철구 목사는 “한인목회자에 대

한 파송불가 명령은 다른 의도가 있는 파송과 행정적 조치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파송 협의과정도 없이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을 준수해온 3분의 한인 목사님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진 파송불가 통보는 전통주의 신앙관을 가진 한인목회자들에 대한 처벌적 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UMC 감독들은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교단 특별총회에서 전통주의 장정을 유지하면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인간의 성> 이슈에 대한 규제조항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정이 불법이라고 규정 한 안수와 파송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전통주의 성향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 휘두르는 불법적 행위를 간과한다면 전국의 한인교회들은 교단 조직만을 지키려는 교권주의자들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파송의 칼에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신앙적 양심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법적 파송, 또는 인종차별주의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교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교회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뜻을 같이하여 도움을 요청해 올 경우, 교단법인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물론 사회법에 의거하여 한인교회를 보호할 것”이라며 “한인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며,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입장문 일부.

연합감리교회는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교단 특별총회에서 전통주의 장정을 유지하면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을



남부플로리다연합감리교회 이철구 목사

고수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인간의 성> 이슈에 대한 규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성향의 감독님, 그리고 미국내 다수 연회와 교단 지도자들은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에 대한 불복종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장정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안

수와 파송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교단의 지도자 분들 스스로는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을 무시하고 여기면서, 교단의 법인 장정을 지키려는 한인교회에 교단지도자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한인목회자에 대한 재 파송불가 명령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많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구성원들에게 장정을 지키지 않는 감독님의 파송이나 행정적 처분이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파송불가 통보를 받은 교회와 목회자, 어느 누구도 새로운 파송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파송통보가 장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 한 파송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전통주의 입장을 지닌 한인교회와 한인목회자들을 향한 처벌적 파송(Punitive Appointment)이라고 보여집니다.

## 예장 합동 미주서부노회, 신임 노회장에 서보천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 미주서부노회는 지난 달 27일, 엘에이 소재 돌로스교회에서 제13회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으로 서보천 목사를 선출했다.

또 부노회장에 진석호 목사, 장로 부노회장에 김대식 장로, 서기에 류진욱 목사, 부서기에 서준은 목사, 회록서기에 고동욱 목사, 부회록서기에 양은모 목사, 회계에 이상준 장로, 부회계에 정중원 장로를 선출했다.

이날 예배는 서보천 목사의 인도로 류진욱 목사가 기도를 한 후 성요셉 목사가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라”(창12:1-3)라는 제목으로 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미주서부노회 제13회 정기노회

교를 했으며, 신상원 목사가 축도했다.

성 목사는 “아브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속사가 완성됐다”며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전했다.

이어진 성찬식에서는 하요한 목사가 “고린도 교회의 성찬”(고전 11:23-26)이란 제목으로 성찬의 의미를 전했다. 김대식 장로와 이상준 장로가 분병과 분잔 위원으로 섬겼다. 성찬식은 증경노회장 김기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정,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은혜의 39 창립 39주년 기념부흥성회  
**이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자**  
2021. 5/13(목) - 5/16(주일)  
장소 :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현장예배)  
www.gracemi.com/온라인예배

5/13(목) 7:30pm 14(금) 5:30am, 7:30pm 이재환 선교사(컴미션대표)	5/15(토) 6:00am, 7:30pm 박기호 목사 (Fuller 신학교 교수)	5/16(주일) 1~4부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	---	--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우리방송 AM 1230 JSTV 미국전역 CH 668(Dishnet)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널드	오전 08:30(주일) 오전 08:00(주일) 오후 12:00, 9:00(주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널드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후 04:30(화요일) 오후 08:00(화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JSTV 미국전역 CH 668	오전 06:00(목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Radio Seoul AM 1650 미주특출방송 AM 1190 CTS TV 한국(금)	오전 09:00(금요일) 오전 05:30(금요일) 오전 11:30(금요일) 오전 05:00(한국시간)
Radio Seoul AM 1650	오전 06:30(토요일)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SON Ministry(GMAN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GKCTV

# 미주 성결교회, 신임 총회장에 윤석형 목사 선출

### 제42회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제로 개최

미주 성결교회 제42회 총회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렘 29:11-13)'라는 주제로 4월 19-20일(이하 현지시간) 줌 화상회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사우스베이에 위치한 산샘교회(담임 윤석형 목사)에서 개최됐다.

둘째날 임원선거에서는 부총회장 윤석형 목사가 총회장에 추대됐다. 관심을 모은 목사부총회장에는 이대우 목사(필라한빛교회)가, 장로부총회장에는 송상례 장로(위싱턴한인교회)가 선출됐다.

이 외에 서기 이정찬 목사(커티컷민음교회), 부서기 이정석 목사(면류관교회), 회계 김성훈 장로(유니온교회), 부회계 최은호 장로(연합선교교회) 등이 임원으로 뽑혔다.

윤석형 신임 총회장은 "부족한 자에게 귀한 직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7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첫째, 교단이 정체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10년 내

2세 목회자들을 100명 이상 양성해야 한다. 둘째, 선교 중심의 교단으로서, 꺼져가는 선교 불씨와 열정을 살리며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홍보로 개교회를 격려하겠다. 셋째, 한국과 미주 성결교단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교단적으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등이다.

또 넷째,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겠다. 다섯째, 교단 장학금으로 모아진 16만 달러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늘려가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여섯째, 미주에서 목회하다 홀로 남은 사모님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한 일들을 고민해 보겠다. 일곱째, 미주에서 목회하다 나간 목회자들을 만나 네트워크를 만들고, 한국 교단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 등이다.

끝으로 윤 총회장은 "기도해 달라. 교단 각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



기념촬영 모습. ©총회

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19일 오후 3시 개회예배에서는 부총회장 윤석형 목사 사회로 장로부총회장 김창완 장로의 기도, 서기 안종기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총회장 김동욱 목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요 3:16-21)'를 제 목적으로 설교했다.

총회장 김동욱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위로하며, '팬데믹을 통해 교회들이 가

사의 축도를 예배를 마쳤다.

이어 지난 1년간 수고한 13명의 지방회장들에게 표창을 전했으며, 교회개혁 공로패를 북가주 지방회 트레이시제일교회 정승구 목사에게 전달하고, 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캐나다 지방회 배성연 목사, 동남지방회 이주일 목사, 워싱턴 지방회 조충현 목사, 북가주 지방회 김진석 목사, 엘에이 지방회 이병익 목사 등 5명의 신임 회원들이 소개됐다.

기타토의 시간에는 목사와 장로의 정년이 70세인데 전도사 정년만 65세인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전도사 정년도 70세로 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토의 결과 헌법위원회로 넘겨 절차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헌법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대면 총회시까지 연기하자는 청원은 1년 더 연구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총회는 첫날인 19일 총회 일정을 마친 뒤, 오후 7시 30분 새로 이전한 총회본부에서 '건물이전 감사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이대용 기자

## 원하트 미니스트리 5월부터 온라인 및 대면 예배 재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예배를 중단했던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내달부터 유튜브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재개한다.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5월 1일(토) 저녁 8시 유튜브 'OneheartTV'에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며, 대면 예배인 화요 찬양 모임을 5월18일(화) 저녁 7시 30분, 라미라다에 위치한 오버플로잉 교회 본당에서 진

행할 예정이다. 원하트 미니스트리의 새출발 주제는 '심플 워십'(Simple Worship)이다.

간편한 것만 추구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배의 불필요한 모든 부분을 내려놓았다. 또 단순하지만 예배의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예배의 모습을 지향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초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 myoneheartministry@gmail.com 또는 전화 213-347-5080(Text Only)로 문의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 박지은 사모 디지털 싱글 앨범 '피스티스' 발표



박지은 사모

박지은 사모는 한국에서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찬양 인도자 및 옹기장이 찬양팀으로 섬겼으며 현재는 남가주 사우스베이에 있는 남가주 기쁨의교회(담임 이황영 목사)에서 사역하고 있다.

디지털 싱글 앨범 '피스티스'는 척박한 이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노래했다. 첫번째 곡 '나 가진 것 없어도'는 이민 생활의 고단함 속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찬양이 돋보인다. 두번째 곡 '하루를 살아도'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담았다.



'나 가진 것 없어도' 앨범 표지

##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미주 한인들의 아픔과 상처 보듬어줄 목회상담사 양성할 것!

## 와우 상담센터, 한기상 목회상담 전문가 자격증 과정 개설

한국의 3대 상담심리학회중 하나인 한기상(한국 기독교 상담심리학회)의 LA 지부, 와우(대표 민규선 목사, Walking On Water) 상담센터(wowcc.net)가 목회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 과정을 열었다.

와우상담센터는 지난 22년동안 기독교상담 및 목회상담가를 양성해 온 한기상의 인증수련기관으로, 자격증과정 및 임상실습을 통해 미주 지역 목회상담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와우상담센터는 권수영 교수(연

세대학교 신과대학장/연합신학대학원장)를 자문위원으로 2017년부터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들과 부모들과 함께하며 목회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한기상의 인증수련기관으로서 KACCP(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 임상실습 및 교육 분석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됐다.

민규선 목사(57)는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교회 목회자들과 사

모, 전도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동안 전문적인 목회적 상담이나 돌봄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기상의 목회 상담 전문 교육과정을 미주 지역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민 목사는 “상담을 공부하는 것과 상담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상담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변화해 나가도록 함께 하는 과정”이라며 “낮선 땅에서 이민생활을 하는 분들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주요한 목회적 돌봄 중의 하나다. 와우상담센터는 한기상 자격증과정 및 임상실습을 통해 목회

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와우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기독교 목회 상담 과정과 임상실습을 통해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는 내담자들의 상담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규선 목사는 미국 시카고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자회(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에서 안수를 받고 2018년부터 와우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문의 : 909-247-7592, wowcc.net



와우상담센터 대표 민규선 목사

현장에서 평신도를 포함한 목회들

## 새언약아카데미 졸업생 명문대 및 UC계열 대거 합격



새언약 아카데미(New Covenant Academy) 졸업식

LA 코리아타운에서 수준 높은 교육과 전인적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새언약 아카데미(New Covenant Academy) 이하 NCA 졸업생들이 올해도 우수한 성적으로 유명 대학에 합격했다.

코로나 사태로 유명 사립 학교들의 대학 합격률이 하락했지만 NCA는 UCLA에 지원한 학생 중 50%가 합격했고 그 외 졸업생들도 USC, UC 버클리,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NYU, 보스턴 유니버시티 등 유명 대학에 진학했다.

또 다수의 학생들이 전액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됐으며 졸업생 20명이 받은 장학금만도 210만 달러에 이른다.

제이슨 송 교장은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겨주신 부모님들, 후원 해주신 모든 분들, 이사진 및 교사들과 학생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독교 명문 학교를 세워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CA는 WASC 공식인증을 받은 K-12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한인타운내에선 유일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문 학교다. 1999년에 설립되어 졸업생 전원에게도 UC 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그 중 다수는 전국 톱 30대 대학에 진학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NCA에 대한 문의로는 이메일 jannah.kang@e-nca.org 또는 웹사이트 www.e-nca.org로 할 수 있다.

## 나성 구세군 한인교회, 한인타운 업소에 손 세정제 전달



따뜻한 사랑 나눔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

할 수 있는 1갤런짜리 4통과 500ml테이블용 세정제 20개 썩이다.

구세군 한인교회(담임 이주철 사관)는 지난 1일, 한인 라이온스 클럽(대표 조주용)과 청소년으로 이뤄진 레오클럽(Leo Club)과 함께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업소들을 방문해 손 세정제를 전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손 세정제는 업소에서 다양도로 사용

박스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한인타운을 응원합니다” 라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주철 사관은 “하루빨리 모든 업소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인 사회에 따뜻한 사랑 나눔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그늘 의연하지 않았다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성애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종희교수(에스대 대표), 송정영목사(송송반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중앙침례대), 신정민목사(동명대), 유권자목사(동일포럼대표), 김민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 / 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원/영)과 속편 ‘빛은 그를 의연하지 않았다’는 북한 건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향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제크오더링: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www.gideonbrothers.org

기독교복음선교회 GIDEON BROTHERS MISSION WORKS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775-7477 gbmw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런 고민은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 경 진  
Senior Pastor Rev. Gyeong Jin Kim

2021 - 2022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4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선발 인원** 00 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http://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1@joyfulccc.org](mailto:scholarship2021@joyfulccc.org)로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04

■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아름다운 선교지 계승을 이루기 위하여(1)”

멕시코칼리시 지역 남쪽 끝 변두리 먼지바람뿐인 광야에 우리 신학교가 있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22년 전 필자가 갖 개척한 교회의 청년들과 단기선교팀을 만들어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는 집 한 채 없었던 먼지 별판이었다. 그 광야에서 신학교의 꿈을 갖고 개척자 임 선교사 내외는 맨발로 시작했다. 이제 그들이 선교를 시작한 지 28년, 신학교 개척한 지 어느덧 24년이 지났다. 그들은 말한다. 광야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깔고, 담장 세우고, 페인트칠 했던 그 집에 우리 부부가 살게 될 것을 오직 주님만 아셨겠다.

임 선교사는 머리 수술 후의 후유증을 몹시 앓고 있다. 심장 수술도 받았다. 선교지의 모래바람으로 인해 담석 수술도 했고, 운동 병이다. 그래서 흑시 모를 일을 위해서 서히 필자를 불러 계승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년 신학교 운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아! 나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었음을 알았다. 잠시 다녀가는 후원자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마치 큰 댐의 작은 균열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영겨서 지난 24년을 만들어냈음을 알았다.

학교를 담당하는 책임 경영자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끊임없는 일들, 멕시코 현지인들과 주변 교회들, 그리고 노회 목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학교는 살아간다. 더 크게 교단이 기대하는 기대치를 만족시켜야 하고 학생들의 강력한 훈련을 위해 지난 학기 3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다. 60명의 재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20명의 교수진을 배치해야 한다. 모두 유급 교수다. 스텝 포함 70명의 식사를 매일 3식씩 주일도 쉬지 않고 담당해야 하는 몫은 우리 사모님들이다. 아니 아내 선교사들이라 말할 것이다. 그래서 4년간 아내 선교사들의 지어준 밥을 먹었던 졸업생들은 그녀들을 마마라 부르는 것이리라.

어느새 312명의 졸업생, 160여 명이 지역 목회자로 사역한다. 100여 명의 여성들은 교회 음악 지도자로 교육 지도자로, 목사의 사모로 사역한다. 그들은 선교사의 꿈의 열매이다. 아니 선교의 하나님이 꿈꾸시는 열매인 것이다.

교회들이여! 멕시코를 바라보라. 그들이 부흥하고 있다. 선교대상국이 아닌 선교 파송국의 꿈을 우리에게 주었다. 세계선교를 주도할 멕시코 선교사들이 지금 이 신학교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가장 무서웠던 것은 부정적 충고였다. 선교 선배들이라면서 한인 선교사의 멕시코 신학교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구제 사역을 하라고, 장소를 큰 도시 지역으로 옮기라고, 신학교 운영은 전문가 분야이므로 초보 선교사의 사역에 맞지 않다고 가장 큰 격려를 받아야 할 대상들에게서 비난과 핀잔을 받았다. 그때 광야를 본 것이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남부 치아파스주에 가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신학생 한 명만 보내 달라고. 그러면 4년 후 그 학생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성장시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앞장서게 하겠다고. 현지인 교회에서도 거절을 당하기 일쑤. 어렵게 모은 첫 입학생이 11명이었다. 그들과 함께 역사적인 입학 예배를 드리고 첫 강의를 드린 그 날부터 24년이 지났다. 단 한 해도 입학생이 부족한 때가 없었다. 첫 입학생이 4년 과정을 마치고 1회 졸업식을 한 때부터 단 한 해도 졸업생을 배출시키지 못한 해가 없었다.

필자도 1회 졸업생을 배출할 무렵부터 후원을 시작한 이곳을 매년 단기선교팀과 졸업식 때엔 거르지 않고 찾았다. 평생 목회자로 살던 자를 늦깎이로 이 선교지의 책임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임 선교사는 전염병이 창궐해도 선교지를 찾은 유일한 선교팀이었다고, 이 선교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종이 후임으로 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작년 7월 미국 생활 33년, 27년 목회를 마감하고 아내도 30년 직장을 내려놓고 멕시코 땅으로 이사를 했다. 10여 년 전 우리 단기팀이 와서 이 집은 장차 선교사들이 이 사실 집이라 하며 열심히 바다

###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15 “바울의 제자 디도”

바울에게 디도데 다음으로 유명하고 중요한 제자가 디도(Titus)입니다. 디도는 목회 서신 디도서 수신자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소개하면서 디도가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디도서1:4에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로 씁니다. 또 고후8:23에서 바울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리라.”라고 소개합니다. 디도는 바울이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디도는 헬라인이며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스 철학과 시학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바울에 의해 회심했고,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예루살렘 공회(행15장)에 참석했습니다(갈2:1-3). 바울이 비록 유대인에 대한 사역을 위해 디모데를 할레 받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방인 개종자에게 할레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디도에게 할레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갈2:3-5).

바울은 디도를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떠날 때 디도를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당시 디도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의 고린도전서 전달(고전16:10-11)과정과 바울의 방문(고후2:1,5-11)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부탁으로 디도는 중요한 편지(Severe Letter)를 전달하였고(고후7:8), 이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들을 듣기 위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고후2:12-13).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이후 디도는 북쪽으로 가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거기서 바울의 디도의 성공적 사역(고후 7:6-15)을 매우 기뻐하며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디도는 이번에는 여러 동행자와 함께 고린도후서를 전달합니다. 바울은

후에 고린도에 있는 디도와 합류한 뒤, 디도를 통해 예루살렘에 성금을 전달하게 합니다. 디도는 갈등 중재, 위기관리 그리고 신실함에 바울이 인정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그의 첫 번째 로마 투옥에서 풀려난 뒤 그레데섬에 들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이 바울의 방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섬 감독으로 임명(딤후 1:5)하고 자신이 못 다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한 뒤 크레타 섬을 떠납니다.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것이 바울이 디도를 크게 신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에게 디도는 믿음의 아들(딤후 1:4), 믿음의 형제(고후2:13)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사람이나 하나님 위로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고후7:6:13:14). 디도는 이후에 그레데섬에서 주교로 활동합니다. 그레데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아데미나 혹은 두기고를 보내어 니고볼리로 오라고 합니다(딤후3:12). 이후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나게 되는데(딤후4:10), 이후 디도는 나타나지 않는데, 디도의 무덤이 그레데에 있고 디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은 헬라 문화권에서 유명한 섬입니다.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서 시실리아, 사르디니아, 구브로 다음으로 네 번째(혹, 다섯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레데는 크레타 문명(미노스 문명 혹은 미노아스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한동안 미노아스 문명은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에 등장하는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크노소스 궁전이 발굴되면서 전설이 아닌 그레데(미노아스) 문명의 실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그레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출생지로, 제우스의 무덤의 소재지로 유명합니다.

그레데 섬은 신약에만 나타나고, 신약 중에서도 디도서와 사도행전에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참석한 사람들 명단에 그레데 사람들(Cretans)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에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의 일행이 폭풍을 피하여 그레데 해안선에 미항과 리시아 등의 항구를 지냅니다. 이외에는 그레데가 성경에서 언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약 외경인 마카비 1서(천주교와 동방정교는 정경으로 인정)에서 그레데 사람들이 유대인을 핍박했다고 전합니다.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바울도 디도서1장 12절에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그레데 사람들을 악평합니다.

이는 그레데 출신 철학자, 시인, 예언자인 에피메니데스(Epimenides)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그는 바울이 아덴섬교에서 인용했던 “우리는 그의 소생(Offspring)이라(행17:28)”라는 시의 원저자이기도 합니다. 에피메니데스는 방자했던 그레데 사람들을 풍자한 시를 남긴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폴리비우스(Polybius)도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B.C 2세기 역사가(歷史家) 폴리비우스는 ‘그레데인들은 돈을 천성적으로 사랑했고, 돈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전합니다. 이는 디도서 1장 12절 이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을 엄히 책망하여 바른 믿음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인터뷰] 김성희 UGA 토목공학과 종신교수

유학생 출신으로 조지아 최고의 공학자되기까지 철저히 겸손케 하신 하나님

올해 초, 유학생 출신으로 조지아 주 최고의 공학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은 조지아 대학교 (University of Georgia, UGA) 토목공학과 김성희 종신교수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조지아기술사협회(Georgia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는 해마다 공학 및 공공복지분야에서 공헌이 큰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를 건설분야, 교육분야, 관공서 및 산업분야별로 한 명씩 선발해 수상하고 업적을 기리고 있다. 김성희 교수는 미국 토목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조지아 지부의 지명으로 교육분야 수상후보로 추천됐고, 각 분야별 수상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021년 최고의 조지아 주 공학자 1인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은 김성희 교수와의 일문일답.

-먼저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략하게 현재의 직책과 연구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UGA 토목공학과 종신교수로 재직 중이며, 제 연구분야는 토목공학 중에서 원격탐사, 비파괴시험, 그리고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노후된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연구입니다. 최근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로부터 약 1.17억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더욱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조지아 주에서 올해의 공학자로 선정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유학생 출신으로 큰 상을 받은 것도 축하드릴 일이지만, 신실하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교회를 섬기고 계신지요?

“현재 안선홍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애틀랜타 섬기는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교회를 찾던 중 일터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섬기는교회에 들려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됐고, 목사님의 말씀 뿐 아니라 목장 내 성도님들의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아 정착하게 됐습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의 조화가 잘 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섬기는 교회는 저의 신앙적 토대를 튼튼하게 잡아주고 있어 가정과 직장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대의 지성인일 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 능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고 계신데, 신앙을 갖게 되신 계기나 혹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신앙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 제 지식과 경험, 능력에 의존해 살았죠. 학부를 졸업하고 1999년에 조지아텍 석사과정으로 처음 유학생 생활 하면서 한 좋은 크리스천 친구가 손바닥만한 성경을 줬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냥 책상에 두고 담배라도 피우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었죠(웃음). 2000년에 텍사스로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가는데, 그동안 연구조교로 번 돈으로 중고차 하나 사서 백미러도 안보이게 짐을 싣고 선배들의 환송을 받으며 맥주도 한 잔 걸치고 한 밤중에 출발했어요. 초보운전이 17시간 거리를 최고시속 65마일 나오는 차를 끌고 밤 12시에 출발해서 4시간 남짓 가니 너무 긴장해서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픈데 갑자기 체크 엔진에 불이 들어오고 덜덜거리기 시작했죠. 갖길에 차를 세우고 너무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주변은 깜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0.0000001퍼센트라도 살아 계시다면 ‘웰컴 투 텍사스’ 간판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그럼 일요일에 교회는 빠지지 않고 갈게요’ 이런 말도 안되는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체크 엔진 불이 사라지고 가는 내내 너무 평안하게 텍사스까지 갔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구나. 내가 하는 기도를 듣는 분이구나. 내가 믿던 안 믿던 나를 버리지 않고 도와 주시는 분이시구나!’. 텍사스까지 가는 내내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영접기도도 하고... 굉장히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 해 2000년 8월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교수님께 딱 맞는 방법으로 만나 주셨네요. 이후 어떻게 조지아로 오시게 됐나요?



조지아엔지니어링 매거진에 실린 김성희 교수 @조지아엔지니어링매거진

“텍사스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한 뒤에, 2005년에 버지니아주에서 공학 설계를 담당했어요. 사실 전 대학에서 가르치게 오래 꿈이었고 졸업과 동시에 수없이 지원을 하는데 아무 곳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가령 한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하면 100명이 넘게 지원해요. 그 중에 10명 정도를 뽑아 전화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다시 3명을 추려서 학교로 불러 며칠 인터뷰를 하고나서, 1명을 최종 선발하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한 군데도 전화 인터뷰조차 없었죠.”

너무 답답하니가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 아닌 불평을 했죠. 도대체 팔자라는 게 있는 거냐고, 졸업하자마자 누구는 원하는 직장을 얻고, 누구는 아무리 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성경구절로 답해 주셨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아람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이뤄왔던 것이 스스로 한 것 같은지 물어보셨죠. 정말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후, 하나님만 의지하며 교원채용에 지원했을때, 갑자기

3군데서 최종 오퍼까지 들어온 거예요. 불과 몇 달사이 제 이력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아내와 상의해서 조지아Southern Polytechnic State University로 왔고, 이곳에서 토목공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대학교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렸죠. 이후 Kennesaw State University에 합병됐습니다.”

-교수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1세대로서 어려움이나 이외에 도전들은 어떻게 극복해 가시나요?

“처음에 수업할 때 1시간 45분 정도의 강의를 위해 기본 4-5시간을 준비했어요. 그 중에 3시간은 영어 준비였죠.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과목당 3시간씩 텍스트북을 다 외웠죠. 그걸 해마다 반복하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학회 발표인데, 발표 이후에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질문들 가장해 발표자를 깎아 내리고 자신의 지식이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발표하는데 압박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나의 발표가 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긴장하고 걱정했다는 것이었죠. 이후 모든 연구와 발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긴장과 걱정 대신 즐거움과 감사가 컸죠. 지금도 제가 하는 연구와

발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미래의 공학도들에게, 또 2세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나눠 주세요.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가 있다면 덧붙여 주시고요.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리고 남들보다 못한 나를 보고 세상이 싫고 하나님이 미워질 때 맥스 루카도(Max Lucado)의 ‘절름발이 양’이란 책을 추천합니다. 절름발이 어린양 조슈아는 초원을 달리는 친구들을 볼 때 가장 슬펐습니다. 왜냐면, 조슈아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지는 절름발이 양이었거든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자기 몸엔 까만 점도 있고요. 늘 외톨이였던 조슈아는 늘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약함 때문에 조슈아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슈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궁금하시면 꼭 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많은 후학들을 배출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기자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후원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서약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박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AZUSA PACIFIC UNIVERSITY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美 저명 법률학자 “수정헌법 제1조까지 위협받는 중”

미국에서 지난 1990년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수사한 특검 출신의 저명한 법률학자 켄 스타(Ken Starr·74) 박사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종교에 대한 적대감과 코로나19 전염병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자유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우려했다.

2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스타 박사는 최근 출간된 자신의 저서 ‘위기에 놓인 종교의 자유: 불확실성 시대에 신앙 생활하기’(Religious Liberty in Crisis: Exercising Your Faith in an Age of Uncertainty)에서 미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판례를 살피며, 향후 수정헌법 제1조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켄 스타 박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예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제한에 비추어 책을 집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대우행과 그 시작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들을 가져왔고, 이를 계기로 40년 동안 마음에 두었던 책을 출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정부가 주정부 부를 비롯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우행은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 자유의 문화를 돌아보고, 성도들이 그들의 자유를 이해하고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기회를 주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책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종교적 자유의 근본 원칙에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와 손자 등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훌륭한 원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적합한 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침례교 고등교육기관 베일러대 총장을 지낸 스타 박사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적대감이 수년간 존재해 온 사실을 인정하며, 최근 몇 년 동안 문화가 상당히 크게 변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종교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간주되고, 다른 이들에게 ‘광범위하게’ 해를 끼치는 ‘차별의 가면’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같은 내러티브를 이해하고, 사회가 선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거대한 선의 원천이며 특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종교적 헌신에 관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내러티브를 갖고 이러한 내러티브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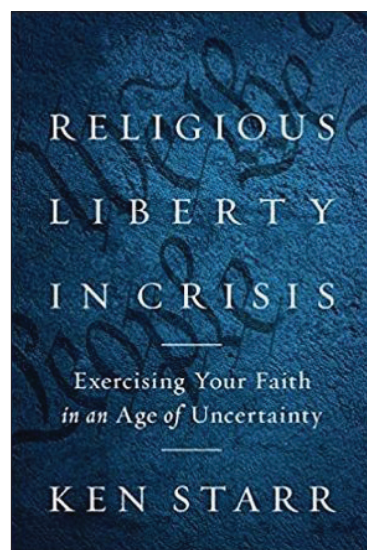
스타 박사는 민주당이 LGBT 개인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를 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홍보하고 있는 평등법을,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1993년 종교자유회복법의 근본적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만약 평등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은 이를 근절시킬 것이다. 또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헌법상 깊은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그러나 소송에는 수 년이 걸릴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필리버스터와 같은 역사적 메커니즘을 보존하여 본질적으로 고삐가 풀린 다수, 매우 좁은 다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등법은 올해 초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하원의 당론으로 통과되었고, 상원에서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상원 법안 가결 시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규정을 폐지시키거나 단순 과반수 득표로 평등법을 통과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스타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입장과 관련, “현재까지 징후가 희망적이지 않다”며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대해 ‘우리는 당신의 신념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길 원하고, 신앙에 기초한 여러분들의 우



신간 ‘위기에 놓인 종교의 자유: 불확실성 시대에 신앙 생활하기’ 표지. ©Encounter Books

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스타 박사는 미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6대 원칙을 제시했고, 지난 반 세기 동안 이 원칙들이 명확히 제시됐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았다.

그는 1981년 위드마브 대 빈센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40년 전 대법원은 대학 캠퍼스의 기독교 단체들이 세속적인 단체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한 사건에서 획기적인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미 고등법원은 캔자스시 미주리대학의 교내 종교단체와 만남을 금지하는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는 “그리고 40년 동안 대법원은 문화가 바뀌면서도 이러한 훌륭한 원칙을 지지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주 블래텐스버그의 공동묘지에 묻힌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헌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가 동성결혼식에 사용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차별금지법 위반했다며 필립스를 처벌하자, 이러한 결정이 그에게 지나치게 적대적이었다고 판결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해진 기자

# “미국 개신교인 3분의 2, 코로나에도 헌금 안 줄여”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미국 개신교인의 약 3분의 2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우행 기간 동안 교회에 코로나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헌금을 하거나 그 이상을 헌금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프웨이는 올해 2월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개신교 교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영적 실천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문조사를 실시,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는 ‘2020년에 2019년과 같은 소득을 교회에 기부했다’고 답했으며, 15%는 ‘더 많이 기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응답자의 23%는 ‘2019년보다 2020년에 더 적게 헌금했다’고 답했으며 10%는 2019년이나 2020년에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았다’



한 미국교회의 예배당 내부 모습 ©크리스천포스트

고 답했다.

보고서는 또한 소그룹에 참여한 교회 신자들의 비율이 2019년 52%에서 2020년 37%로 감소한 반면,

응답자의 15%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기독교적 삶에 관한 책을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 중에서 18~29세 교회 성도들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대면 예배, 현장 성경 공부 및 온라인 성경 공부에 더 많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스콧 맥코넬(Scott McConnell) 라이프웨이 리서치 이사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가 제자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행 전(Pre-pandemic) 교회 신자들이 이듬해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 대체로 더 많은 결의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수많은 전 세계 교회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자, 장기적인 재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연합 감리교회는 올해 2월

보고서에서 교단이 대우행 봉쇄 조치로 인해 예상했던 헌금 감소보다, 2020년에 더 많은 헌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UMC 재무행정 부서에 따르면, 교단은 2020년 미국의 사역 지원 분담금 총액의 79.3%를 거뒀다. 이는 최근 10년간 연합감리교회의 헌금 중에서는 가장 낮지만, 총회가 기존에 예상했던 70%보다는 높았다.

지난해 10월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웨이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5%는 대우행 폐쇄 기간 동안에 교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43%는 교회가 ‘다소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며, 5%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교회가 ‘매우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은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녀는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www.marhlaw.com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맡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겨림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아침)기도회(마침)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2부 오전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금)  
 중교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EM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교육부 후원예배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금요성경예배 오후 8:30 (수요주중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중교등부 오전 11시 (금요주중예배: 오후 7:30)  
 1954 Hensel St., Northridge, CA 91326 EM: 오후 1:30  
 T. (818)935-5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교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교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취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라,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 “세계 40억 인구, 종교자유 침해 국가에 살고 있어”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박해 국가 50위. 아시아와 아프리카 10/40창에 집중돼 있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다.

현재 전 세계 40억 명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국가에 살고 있다고 교황청재단의 ‘고통받는 교회 돕기(Aid to the Church in Need)’가 2021년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는 26개국은 가장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 국가에 속해 있다. 이들 중 12개국은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으며, 그 중 나이지리아는 오랜 기간 천연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기후변화, 빈곤 증가, 무장 범죄조직의 공격으로 인해 민족 분열이 악화되는 국가로 평가됐다.

ACN 보고서는 나이지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지역사회와 다른 신앙 집단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함께 살아왔다”며 “그러나 지난 10년간 이 나라 전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 밖에도 가장 심각한 종교 자유 박해 국가로 분류되는 ‘적색’ 목록에는 중국과 미얀마가 있다.

보고서는 특히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Rohingya)과 중국 북서부 신장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족(Uyghurs)에 대한 대량학살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전체 국가의 약 3분의 1(31.6%)에서 침해 당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심각성은 ‘상당히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우려되는 테러 단체로는 적도 부근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슬람 대제국을 건설

하려는 이슬람 국가(IS)나 알 카에다 등의 대규모 지하드 조직들이 지목됐다.

ACN은 “말리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인도양의 코모로, 남중국해의 필리핀까지 지하드 폭력의 초승달이 뻗어 있다”며 동시에 서방 세계로 확대되어 가는 ‘사이버 칼리프(cyber-caliphate)’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또한 기독교인을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중국과 함께, 니제르,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은 지난 해 종교 소수자들을 전염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새로운 형태의 박해가 나타났다고 이 단체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권위주의 정부는 더욱 억압적이 되고 있으며, 소수 종교를 ‘사실상의 2등 시민의 지위’로 격하시키는 등 종교적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는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종교계 소수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법으로 규정된 이러한 새로운 문화 규범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법 준수의 의무와 심각한 갈등을 빚게 한다”고 우려했다.

토머스 하이네겔더(Thomas Heine-Geldern) ACN 인터넷서널 회장은 연구 결과에 대해 “아쉽게도, 유엔 기구와 종교 자유 대사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종교와 종교 박해에 기초한 폭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너무 적거나 늦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유진 기자

# 인도 코로나 확진 하루 30만 명 이상... 기도와 도움 호소

최근 인도에서 하루 30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일 연속 발생한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인도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에서 병원들이 쏟아지는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미흡한 가운데,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는 1,73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도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인도를 돕겠다고 했다.

기두말 회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백신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신을 주문하는 나라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 영국 같은 경우 60%가 백신을 접종했다. 만약 전 세계에서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함께 이를 나누고 관대해지자”고 했다.

이어 “각 나라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보를 위해 관대한 정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인도 정부가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도 정부는 23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현재 미국, 뉴질랜드, 홍콩, 영국은 인도를 오가는 비행기 직항편 운영을 중단했으며, 시민들에게 인도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우리에게는 산소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공급 업체들은 우리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28일 “텔리의 대표적인 병원인 가나람 병원에서 산소 부족으로 25명의 환자가 사망한 후, 병원은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또 매일 1만 명 이상이 변종 코로나19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도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인도를 돕겠다고 했다.

기두말 회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백신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신을 주문하는 나라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 영국 같은 경우 60%가 백신을 접종했다. 만약 전 세계에서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함께 이를 나누고 관대해지자”고 했다.

이어 “각 나라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보를 위해 관대한 정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인도 정부가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도 정부는 23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현재 미국, 뉴질랜드, 홍콩, 영국은 인도를 오가는 비행기 직항편 운영을 중단했으며, 시민들에게 인도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 김진홍 목사 무죄 판결 “주사파 찍지 말라 했다고 재판? 나라 장래 염려”



김진홍 목사. ©김신의 기자

가 있다. 법치란 이름으로 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란 사실”이라며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로 1년간이나 판사 3명, 검사와 변호사까지 동원되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였으니 한심스러운 바가 아닐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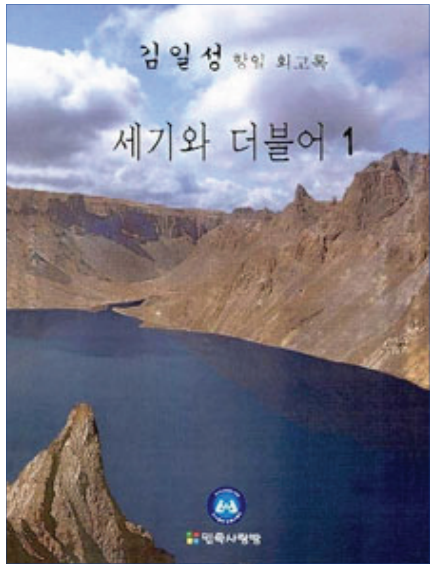
김 목사는 “고소된 사안이 내가 설교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임을 믿고 주장하는 주사파(主思派)는 선거에서 찍지 말라는 말 때문이다. 그리고 친북 친중 활동에 전념하는 인사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발언 때문이었다”며 “그 발언으로 고발을 당하여 재판에 1년 세월을 보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이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호감을 표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청와대 고위직에도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 인사들이 계속 고위직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나라의 장래가 염려된다”고 밝혔다.

또 “그러기에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주사파 인사들과 친북 인사들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여야 한다. 그런 인사들은 국가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당연한 말을 하였는데 그 일로 고발되어 1년이나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나라의 장래가 염려된다”고 전했다.

송경호 기자

# “김일성 회고록, 북한 최고 경전... 판매·배포 금지해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자료사진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 민주주의 연대(NPK)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일성 회고록'에 대해, 법원 등이 그 판매와 배포 금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NPK는 “NPK 및 여러 시민들이 지난 23일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어제(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다”며 “피신청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김승균)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은 기일 변경신청이 불허되었는데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NPK는 자유체제 수호를 위한 근본 조치로서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함을 내일(29일) 심의를 앞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에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김일성 회고록은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이적표현물로, 권당 수십 개의 개별 장들이 다 독립적인 세뇌 학습 교재로 사용되는 북한 전체주의 최고의 경전에 해당하는 책”이라며 “70년 동안 지속된 조작과 거짓의 극치라 할 수 있고, 다른 언론·출판물들의 원전이라 할 수 없기에 이의 유통은 북정권의 모든 체제 선전물들이 제한 없이 유통되고, 강연회·독서모임·관련 내용 공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계기를 이루어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무력화와 폐지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이론적 바탕인 방어적 민주주의론이 수십 년 전 납용된 사례가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정을 알면서'라는 단서가 추가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전통이 법원에 확립되어, 현재는 과도적용보다 과소적용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일성 회고록의 배후에는

체제를 대치하고 있는 전체주의(준)국가 기구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차원이 다른 후속 행위가 뒤따를 것을 예상해야 한다”며 “김일성 회고록을 판매·배포하는 조직은 결코 고립된 개인 출판사라 볼 수 없다. 북한 전체주의 정권은 체제 선전과 대남 공작에 중요한 노력을 멈춘 적이 없고, 유일사상에 기반한 체제 선전의 핵심인 김일성 회고록의 대남 유통에 초연한 입장을 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NPK는 “유엔북한인권보고서(COI) 요약본 제26항 또한 '북한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국가적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며 “이처럼 엄연한 현실에 자꾸 눈을 감고,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 강변하는 것은 20세기 인류가 겪은 세계사적 대화합의 경험을 무시하고 우물만 개구리 식의 국가정책을 내세우는 것으로, 무책임하며 사실은 속임수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의 실상을 알기 위해 이 책의 일반 유통을 허용하지는 주장도 들려온다”며 “이 책의 내용은 실상이 아니라 정교한 조작이며, 공산주의식 세뇌인 영혼의 엔지니어링이다. 80년대 대학가에서 이 책을 접하고 평생 그 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고가 수없이 전해진다”고 했다.

이들은 “전체주의 선전 조작이 고도의 예술 수준에 이르러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일반인의 감정적 반응을 고강도로 유도할 수 있음을 절대 경시해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80년대 대학가로 만들 심산인가? 해방되어 잠시 자유를 누리다가 그 자유를 남용하여 자유를 잃고 다시 노예의 멍에를 매게 되었던 인류사의 반복된 패턴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NPK는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가치를 제대로 수호하려는 민주주의의 자라면 정보 유입의 절대적 비대칭 상황에서 전체주의 국가 선전의 문호만을 완전히 개방하지는 주장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구나 김일성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있는 전쟁범죄자요, 반인도범죄자”라고 했다.

아울러 “COI 보고서 요약본 제75항에 쓰인 바와 같이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졌으며, 이는 북한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이 되었고, 가장 강력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범죄자를 거짓으로 미화 찬양한 책을 일반에 유통케 함은 자유체제 수호를 위한 근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남말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韓語)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새벽예배 오후 5:3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목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A)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생으로 활동하며 생애를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로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V)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주일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네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설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B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회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토)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주일학교/중고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r.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찬양예배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예)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예배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락한 교회 삼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1년 3월 22일개강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1 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초대교회사	Daniel Min
Tue	7:30 PM - 9:30 PM	데살로니가후서,고린도전서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영성 신학	Elijah Kim
Thu	7:30 PM - 9:30 PM	선교신학2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	Jong Y Kim
Sat	7:30 PM - 9:30 PM	시편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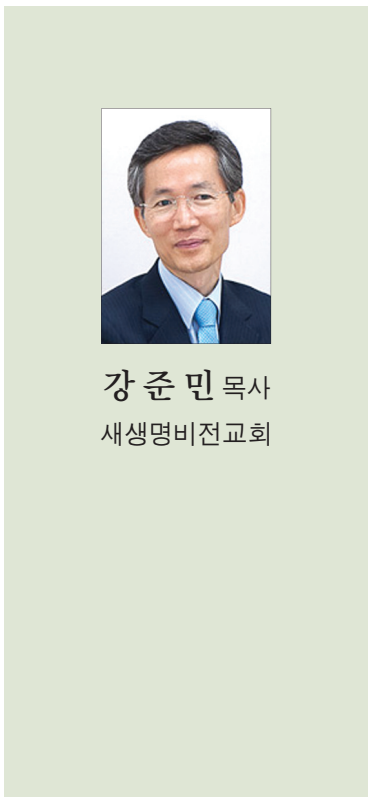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양육의 지혜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잘못된 사랑은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랑은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를 겸비한 사랑이 자녀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는 거듭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복을 모두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시 31:19, 34:9; 잠 22:4).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운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줄 압니다. 순종이 중요한 까닭은 축복의 원리요(신 28:1-14), 사랑받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요 14:21).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가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보고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 존 애덤스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거기에는 온 세계의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성경을 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카이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자녀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존귀히 여기는 자녀의 인생은 존귀하게 됩니다.

셋째, 자녀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고 말해주십시오. 자녀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스테반은 “그 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행 7:20)고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잘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 내 주어야 합니다. 무한한 잠재력은 각 자녀에게 있는 독특한 기질과 재능과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관찰하는 중에 발견하는 재능과 장점을 강점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 기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넷째, 자녀가 하는 말과 질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지혜는 경청에 있습니다. 자녀가 하는 말을 부모가 경청해 줄 때 자녀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자신이 하는 말과 질문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말할 때 모든 것을 멈추고 집중해서 경청하도록 하십시오. 자녀가 하는 말에 공감해 주십시오. 당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면 조금 시간을 달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적합한 답을 찾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질문이 너무 어려워 대답하기 어려우면 잘 모른다고 대답하십시오. 부모의 솔직한 반응을 통해 자녀는 정직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감사하는 성품은 모든 성품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칭찬받을 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고난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녀는 자족할 줄 압니다. 자족할 줄 아는 자녀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상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 사랑의 최상의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를 통해 자녀가 좋은 성품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자녀가 좋은 만남과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기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어린 아이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혜를 그리고 보배와 같은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를 지키는 천사들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 18:10).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작은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실족시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교회는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종종 주변부로 밀려나는 아이에게 동등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십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이를 유산시키거나 출산한 아이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한 아이와 여아를 버림으로 남자의 수가 여아보다 훨씬 많은 현상을 경험하였습니다. 여자의 수가 부족해지며 점차 낮은 나이에 있는 아이를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12세 정도의 사춘기도 경험하지 않은 소녀를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처녀들이 많았고, 평균 18세가 되어 결혼했으며, 적령기의 처녀들이 교회 밖의 로마인과 결혼하여 로마의 상류사회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뵈는다는 놀라운 계시를 전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길러본 사람은 생명을 낳고, 지키고, 양육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낄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1981년 4월 텍사스의 팔레스타인에 살던 하디 가족은 사촌이 사는 휴스턴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살 된 제이슨 하디가 수영장에서 멀지 않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부부는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 깜박할 사이, 어린 아들 제이슨이 그곳에 없는 것을 알고, 어머니 수는 별떡 일어나 수영장을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회

가서 찾아보았습니다. 수영장 물은 조용하였습니다. 그는 앞마당, 길거리, 집안으로 급히 다니며 찾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수는 조카와 함께 다시 수영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수영장 바닥에 희미한 물체가 보였고, 조카는 죽은 아기를 꺼내어 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는 맥박도 심장도 뛰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1시간이 지나도록 숨을 쉬지 않은 아이에게 심장 충격을 주어 다시 호흡을 살려냈습니다. 41세에 아이를 낳은 어머니 수는 전심으로 기도했고, 아기는 혼수상태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였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스스로 걸어서 퇴원하게 해달라” 간구했습니다. 20일 후 제이슨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7개월 후 아이는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후 7세가 되어 텔레비전의 수영장을 보던 제이슨은 갑자기 말하였습니다. “풀장 밑바닥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천사가 함께 있어 주었어요” 수는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제이슨 천사라고?” “응, 천사가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이들을 위해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니 기도 합니다.

### ■ 박광철 목사의 영성 개발

## 교회생활에 관하여



솔트하우스선교회 대표  
박광철 목사

한 마디로 표현하여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영성이 빠르게 개발되지 않으며 또한 잘못된 예배와 교육을 받게 되면 영성이 비뚤어지게 된다. 자신의 신앙이 건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며 더욱 개발되기를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복음적이며 건전한 신학에 근거한 교회를 찾아야 하고 그 안에서 정규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말할 때에 예배당 건물 (local church)을 의미하여 그 안에서만 구원이 주어진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큰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 교회” (universal church)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즉 구원받은 사람만

이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한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일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집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최선의 신앙생활이 아니며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 로마 황정 시대에 성도들이 지하 땅굴에서도 모여서 예배하던 것을 기억하라.

다른 성도들과 가까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라. 여기서 “교제”라는 뜻은 어떤 사교적인 모임이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돕는 것을 말한다 (히 10:24). 성도들 간의 솔직한 신앙 고백과 무거운 부담을 함께 나눌 때에 서로 힘을 얻는다. 필자는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고 믿음의 확신을 받게 되었는데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화와 상담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왔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되새기면서 교훈을 받은 것처럼 본인도 믿음의 선배들의 말과 생활을 보고 배우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했다. 주님을 중심으로 더불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 더 경험한다. 이것은 신앙의 놀라운 비밀과도 같다. “두 세 사람이 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주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가 더불어 모일 때에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더욱 확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무미건조해 나눌 때에 그 뜻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리라. 교회로부터 무슨 영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내가 줄 것이 있는지 보라. 그것이 주께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속 속한 성도는 혼자로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성 개발에 있어서 교회 생활은 필수적이다. 그런 면에서 건강하고 평안하며 구원받은 이들이 늘어나는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정생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를 마친 후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교회나 국가 또는 학교나 종족이 아니라 가정이다. 아담과 하와는 남녀가 부부가 됨으로 최초의 가정을 이룬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정이 튼튼하고 행복하면 먼저 그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며 나아가서 그들이 속한 교회와 직장 그리고 나라가 행복해 질 수 있다. 또한 가정이 사회 구조 전체를 떠받치는 기본이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에 있지 않겠는가?

왜 현대 사회가 여러 면에서 휘청거리는가? 왜 범죄가 증가하고 청소년 범죄뿐 아니라 심지어 아동 학대 같은 죄악들이 범람하는가? 정치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보다도 가정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 해체 문제에는 그 원인이 다양할 것이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하면서 부부가 남녀가 아니라 동성끼리도 부부가 되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후손을 얻을 수 있는가? 입양과 같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질서는 부부 사이에 자녀를 갖는 것이다.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세계 여러 곳에서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부부도 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性)이 단순히 쾌락위주로 사용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유럽의 일부 나라에는 미성년자들에게도 성 행위를 눈감아주고 또 그런 것을 유도하는 음악과 영화, 각종 유희 거리가 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좋은 성도는 가정에서 좋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좋은 형제가 되어야 한다. 밖에서는 유능하고 훌륭한 사회인이지만 가정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폭군이 된다거나, 외부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성이지만 집안에서는 자녀 교육이나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다. 아버지와 남편 된 사람은 가정

에서 좋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 가족의 영적 생활은 아버지의 영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부모의 기도 생활, 경건 생활, 복음 전도와 헌신의 생활을 늘 보면서 자라는 자녀는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태도 또한 자녀의 영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알라 (딤후 5:8). 전도할 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식구 중에 교인이 있는데 가정 생활이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면서 다른 식구들에게 전도를 시도하는 것이다. 좋은 호응을 얻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어느 부인은 아침 일찍이 집을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저녁 늦게 귀가하는데 그의 딸은 그런 엄마의 가정에 대한 무책임에 반발하여 의도적으로 교회를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라. 이것에 실패하면 가족 전도가 더 어렵다. “주에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는 말씀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전파되어 결국 다른 가족도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이다. 영성과 가정 생활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영타슈 주님재민  
 영타슈 주님재민  
 영타슈 주님재민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향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나팔과 아비가일이 주는 교훈

사무엘상 25:23~38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사무엘상 25:2~3에서 보면 “마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중략)...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던라”고 아비가일과 나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운에서 5리정도 떨어진 갈멜이라는 곳에 다윗이 유백 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훗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거역하여 불순종했고 오하여 자기를 추켜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아말렉과의 전쟁을 자기 전술과 전략으로 이긴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공덕비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셨음에도 아말렉 사람들의 가족들을 골짜기에 자기 뭍으로 숨기기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세움 받고 쓰임 받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공덕을 치하하고 자기이름으로 행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부득이 그를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같은 사울을 이미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왕의 후계자로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성령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맡겨진 양떼를 돌봄에 있어서도 맹수들과 싸우면서까지 목자의 사명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 신앙인격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맘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에게 망명생활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무용(武勇)에 뛰어난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왕조를 세우기 위하여 훈련하고 있었던 곳이 갈멜이었습니다. 다윗은 근처에서 양과 염소를 돌보고 있던 나팔의 목자들을 당시 강도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해치지 못하게 지시하고 더불어 목동과 양떼까지 보호하여 지키게끔 했습니다.

그러던중 나팔의 양털 깎는 날이 되어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수입이 생기는 소망적인 날이라 큰 잔치를 베풀고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넉넉히 대접함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여 인심을 후히 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팔에게 이르러...(중략)...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삼상 25:5-8)”고 그의 부하 열 명을 나팔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나팔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중략)...자들에게 주겠느냐(삼

상 25:10~11)”고 합니다. 그는 빈정대며 주인에게서 떠나 반란을 시도하여 갈라져나가 문제를 일으키는 놈들이 있다고 다윗을 빗대어 욕을 한 것입니다.

나팔의 미련함은, 첫째로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쓰실 사람인 다윗을 몰라본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가족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지금껏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원리를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는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여 죄짓는 일에도 사용하고, 사치하고, 기본 내키는 대로 남용하여 잘못쓰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나팔이 했지만 결국 사용하는 것은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팔의 세 번째 미련함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하고 알아야 우리 믿음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 전혀 무지했습니다.

나팔의 이런 미련함에 빈손으로 돌아온 다윗의 부하들을 보고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백 명 가량은 칼을 차게 하고 그들을 죽이러 올라가고 이백 명은 그 소유물 곁에 남겨 두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도 실수였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목동과 가족을 돌보아준 것에 대한 응답한 댓가로 생각한 다윗은 나팔이 자기를 모욕하고 무시했다고 생각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로마서 12:19-20에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중략)...네가 솟을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팔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의 종으로부터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육하였나이다...(중략)...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삼상 25:14~17)”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서둘러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다섯과 붉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문지 이백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나팔을 향해 가고 있는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자신의 남편 나팔이 너무나 서운하게 대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러 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남편은 이름과 같이 미련한 자며,

자신이 신앙인격으로 그런 남편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자신이 가져온 이 음식으로 배불리고 구하는 용서를 받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쓰실 계획을 압니다. 곧 왕이 되실텐데 왕좌에 오르시게 되면 이런 미련한 사람 때문에 피 흘리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왕의 허물이 될까봐 이처럼 사정하고 비오니 미련한 자들을 죽일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피흘림을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말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도...(중략)...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삼상 25:32~34)”합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받고 그녀의 말을 듣고 그 청을 허락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남편 나팔에게로 가보니 왕의 잔치같은 잔치를 하며 술에 크게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바로 말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기다려 술이 깬 후에 말을 해줍니다.

신앙적인 지혜는 반드시 해야 할 말도 상황과 때를 분별하고 상대를 잘 알아 상대가 영적인 유익함으로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 12:36)”했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자신의 은혜를 지켜가기에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 안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죄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상대의 형편 사정을 살펴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못

을 일러주고 깨우쳐 준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아비가일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신앙인격으로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 나팔이 다음날 아침, 술이 깨어 일어났을 때 전날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들은 그는 낙담하여 몸이 둘과 같이 되어 열을 후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팔의 어리석음을 통한 아비가일의 신앙지혜를 본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교훈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반면 다윗을 알아보게 된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 맞추어 처신을 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 주심을 받은 신앙인은 예수님께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남편이 죽은 후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하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회개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나팔과 같이 없애버리십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예수님과 영원한 영적신부가 되도록 예수님의 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교회의 목자인 목사들은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그 교회에 속한 양떼가 모두 하늘나라 가도록 하기 위하여 진액을 다하여 애쓰고 있다면 이런 목자의 뜻을 따라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칼라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up \$2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40<sup>up</sup>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16)

# 드라마 <조선구마사> 논란과 알팍한 중국식 '문화 침공'

중국식 문화 선전 의도가 담긴 작품들 살펴보면, 중국 정신문화적 영역은 사실상 거의 반영 안돼 이런 물질적 방식, 역사 왜곡으로 반감만 일으켜

### ◆중국 문화의 침습: 알팍함을 드러낸 중국식 문화 침공

지난주 논란이 된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폐지는 여러 모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문화 이슈이다.

이 사건은 친중 노선을 굳건히 고수하는 다수 정치권 인사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극렬한 반중정서가 퍼져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다. 또한 중국의 문화적 우월감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대중문화 콘텐츠 치고 제대로 된 퀄리티를 보여주는 작품이 없다는 점 역시 확인시켜 준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문화대혁명 이후 자국 문화의 핵심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되고 있다. <조선구마사>에서 논란이 된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드라마에서 조선의 문화, 나아가 한국의 문화가 중국 문화의 지류 혹은 아류라는 것을 보여주려 동원한 수단 대부분은 복식과 음식, 그리고 배경음악 등 문화의 지극히 피상적인 요소들이다. <조선구마사>와 함께 논란이 된 <빈센조>의 중국산 '파오차이' 비빔밥 역시 마찬가지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문화에는 유형의 문화와 함께 무형의 문화가 있다. 무형의 문화 영역에서는 인간관, 세계관 등 정신문화적 요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조선구마사>처럼 중국식 문화 선전 의도가 담긴 작품을 보면, 중국의 정신문화적 영역은 사실상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조선구마사>도 겉표장만 조선 혹은 중국이지, 사실상 서사 전체를 보면 서구식 좀비 혹은 퇴마 서사의 설정들을 영성하게 짜집기한 것에 불과하다.

서구식 좀비 및 퇴마 서사의 설정들은 그 상업적 흥행력을 이미 전세계에 증명해 놓은 상태이다. <조선구마사> 제작진은 이 흥행력을 가진 프레임 안에 조선과 중국의 피상적이고 물질적인 문화요소들을 이리저리 뒤섞어, 한국 문화의 뿌리가 중국임을 보여주려 한다.

최근 한국의 한복과 김치를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 매체들의 근거없는 주장에 국민들이 분개하거나 조소를 보낸 사건이 있었다.

<조선구마사>에 등장한 중국식 문화 요소들은 이렇게 불일듯 일어난 중국에 대한 문화적 반감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결국 시청자들의 극렬한 비난에 밀려 방송 편성에서 폐지되는 수순을 맞이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복이나 김치 등 한국 고유의 특정 문화 품목을 거짓으로 중국 것이라 주장하는 행태 자체보다, 그러한 문화 침탈 행태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성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의 문화 침탈 방식은 영토, 복식, 음식, 주거양식, 건축양식 등 대부분 유형적 문화요소를 걸고 넘어지는 데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역사를 면밀히 들여다볼 때, 중국 문화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졌던 영역은 주로 정신문화 영역이다.

도교, 유교, 중국화된 불교, 그리고 법가사상 등 중국에 의해 탄생하거나 정비된 종교나 사회 사상, 그리고 여기에 근거를 둔 인간관과 세계관 등은 과거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전반의 역사적 운명을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잡아 왔다.

### ◆중국 문화의 수준 저하: 정신 문화를 상실한 매력없는 중국 문화

그러나 20세기 들어 이러한 문화적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일단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탈로 인해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절대적이었던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 등 서구 열강과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졌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마오쩌둥의 지도 하에 공산주의 사회로 변모했고, 그의 정치적 실책으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와 침체를 겪게 되었다. 특히 문화대혁명을 통해 자국의 정신문화 유산을 거의 강그리 잃어버리고 말았다.



중국의 문화침탈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드라마 <조선구마사>.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 문화재들이 많이 파괴되고 중국 문화의 정수를 아는 지식인 다수가 사형당하거나 자살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민중들 사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나름의 깊이가 있는 중국의 정신 문화 유산 전수가 홍위병 양상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세뇌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마오쩌둥 본인의 나름 체계적인 유물론 사상도 큰 몫을 담당한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던 북한의 김일성과 달리, 마오쩌둥은 후난성 고등중학교 수석 졸업자였고, 사범학교 졸업자인데다, 베이징 대학에서 2년간 사서 일을 하면서 철학과 수업을 청강하던 지식인이었다.

마오쩌둥은 당시 마르크스에 의해 창안되고 레닌에 의해 실천적으로 보완된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고, 이를 중국식 공산주의 사상으로 개조하는 데 지대한 공로를 남겼다. 권력을 잡기 전 청년 시절의 마오쩌둥은 당시 중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몇 안 되는 높은 수준의 학식을 가진 사상가이자 혁명가였던 것이다.

마오쩌둥의 이러한 공산주의 이론가적 면모는 훗날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 중국 전통의 정신문화에 오히려 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마오쩌둥의 체계적인 중국적 유물론은 중국 전통 정신문화를 면밀하

게 분석해 비판하고 말살하는 무기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로서 중국 정신 문화의 섬세하고 윤리적이고 인본적인 요소들은 중국의 소수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회자되고 있을 뿐, 공산주의 세뇌교육으로 우민화된 중국 민중 전반에서는 거의 잊혀진 구습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정권의 비호를 받는 중국의 문화 자본이 중국 대중에게 설득력을 갖출 만한 주변국 문화침탈을 수행하기 위해 공략 대상으로 선정할 만한 요소는 대개 유형의 문화요소,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문화품목 밖에 남지 않았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서북공정 이니 하는 역사왜곡과 문화 침탈 방식 전반이 이러한 방법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은 직관적으로 확인되는 역사 왜곡, 전통 왜곡을 수반하기 때문에 침탈 대상에게 즉각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데다, 물질적인 것에 얽매어 있어 정서적 감흥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매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중국의 문화침탈이 문제시되는 점은 한국의 문화유산 강탈 시도 그 자체보다, 그러한 시도에서 엿보이는 중국 문화의 유물론적이고 반종교적 성격이다.

기독교인에게 좋은 문화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심을 가르치는 문화, 물질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실재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문화,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깨우쳐보다 고결하고 온전한 존재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초월자인 신을 의식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는 습성을 기르는데 유익하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문화침탈을 시도하는 중국의 문화는 나쁜 문화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갖추고 있다.

결코 초월적이지 않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영토, 인구, 기술력, 군

사력, 경제력 등)와 공산당 지도자들을 최고 가치로 두는 행태, 그리고 중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이며(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 영토와 문화요소 전체를 마음껏 침탈할 수 있다는 억지스러운 자부심과 지배욕이 현대 중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문화영역에서마저 오로지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오늘날 중국의 현실은 그 안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말한 "신이 없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 중국 문화 영역에서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중국 문화의 이런 피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성격은 인간을 신앙과 윤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큰 강점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선구마사>에 대한 우리 시청자들의 반발심 표출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폐지는 지극히 합당한 처사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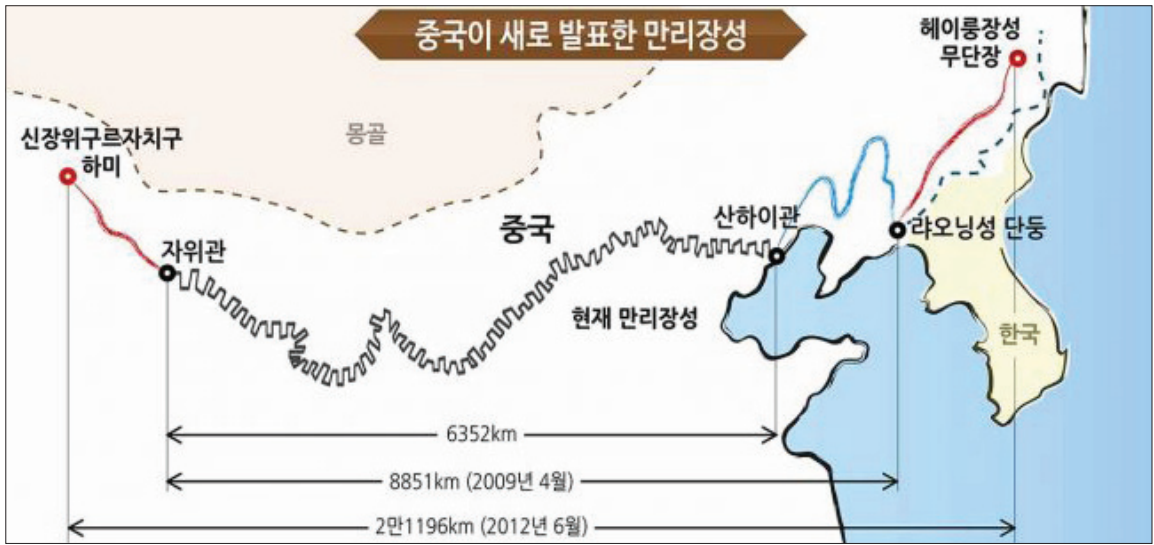
이러한 판단이 적절하다는 점은 중국식 문화침탈 시도의 방법적 측면뿐 아니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중국문화의 기본적인 성향, 즉 중화주의를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본회퍼 신학의 관점으로 볼 때, 중화주의는 본질적으로 나치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윤리적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계속>

###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서북공정에 의해 허위로 늘어난 만리장성. 고구려와 발해 역사가 모두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허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드라마 <빈센조>의 중국산 '파오차이' 비빔밥.



영화 <패왕별희>에 그려진 문화대혁명 인민재판의 자아비판 장면.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중세를 끝낸 흑사병, 코로나는?

교회, 코로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대상  
변하고 있는 시대 알아야...  
교회마다 새로운 개혁 일어나길



코로나 인문학  
안치용  
김영사 | 224쪽

코로나  
사피엔스를  
위한 인문학  
바이러스가 만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근본적 성찰

'타인이 지옥'이 된  
코로나 시대에  
일상적으로  
강제되거나  
권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는  
'고립된 나'라는  
현대인의 숙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고립되는 나'는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고립된 나'와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인간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코로나를 위기(危機)라고 말한다. 다른 누군가는 기회(機會)라고 말하기도 한다.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는 만큼 다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위기'라고 표현할 것이다.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즘 서점가에는 자기계발 서적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베스트셀러 상위권에는 주식과 부동산 관련 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구독하는 유튜브는 재테크 관련 채널이라고 한다.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을 아느냐이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훨씬 다양했다.

코로나19 초기 확진자는 하나의 인격이기 전에 숫자로 표시됐다. 숫자로 표시된 확진자는 많은 사람의 혐오 대상이 되었다. 마스크 공급이 불균형할 당시, 사재기를 하며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현재 상황에서, 돈이 없던 형제에게 치킨을 무료로 제공한 사장도 있었다. 코로나19 초기 미지의 공포와 맞서며 의료 현장에서 헌신했던 의료진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경제적 지식만이 아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진정한 인간성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코로나 인문학〉은 코로나가 인간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저자 안치용은 인문학과 신학을 전공했고, 현재 〈지속가능저널〉 발행인 겸 한국 CRS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영화평론을 하며 자신을

인문학자라고 소개한다. 〈코로나 인문학〉은 크게 2부 9장 구성을 하고 있다. 1부는 코로나 이전 전염병에 대해서 다룬다.

코로나 이전 가장 유명한 전염병은 흑사병이다. 흑사병은 전염병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인류 역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흑사병은 많은 문학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흑사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특별한 계획을 세운다. 줄리엣이 잠시 죽은 상태로 머무를 수 있는 묘약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로미오에게 편지로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편지는 결국 로미오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로미오와 줄리엣〉은 동반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

로미오에게 편지가 전달되지 못한 이유는 역병 때문이었다. 역병 때문에 편지를 전달하려는 사람이 격리되어,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흑사병은 유럽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성직자가 급감하면서 성직자로

가는 문턱이 점점 낮아져,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함량 미달인 성직자가 배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흑사병으로 인해 함량 미달의 성직자가 늘어났다. 그로 인해 교회 안팎의 몰락 조짐이 확산되며, 결국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14세기 중엽 흑사병의 대유행은 심각한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몰고 왔으나 유럽에서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과 신분제적 강제가 결합한 농노가 사라진 대신 초보적이긴 했지만 시장질서 아래 임금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출현했으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맞춰 부르주아라는 싹을 틔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

흑사병은 자본주의의 시작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흑사병은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큰 흔적을 남겼다.

2부에서는 코로나 이후 변하게 될 세상에 대해 인문학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미국인들이 마스크 착용을 피하는 이유, 선진국들이 방역에 실패한 원인, 세계화 시대 언택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인간 이해는 연결에 기반을 둔다. 우리는 수많은 사회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전염병은 연결에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연결될수록 전염병의 속도는 더욱 빨리 퍼진다.

거리두기, 격리, 비대면은 연결의

반대말이다. 연결할 수 없어 선택한 방법이 온라인이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가짜 뉴스' 혹은 '가짜 정보'가 걸러지지 않은 채 확산하는 것이다.

코로나의 파괴력은 오프라인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까지 영향을 미친다.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코로나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다.

흑사병이 전염병으로 그치지 않고 역사의 변화를 주었다면, 현재의 코로나 또한 단순한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인 김난도는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한 번 변화된 것은 과거로 회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겪고 있는 변화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자영업자, 청년 그리고 교회라고 한다. 교회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코로나 이면에 변하고 있는 시대를 알아야 한다. 잘 알아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야 한다.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교회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아닌,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지난 2월 코로나 초기 주일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한 서울 해화동 명문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던 모습(본 사진은 해당 서평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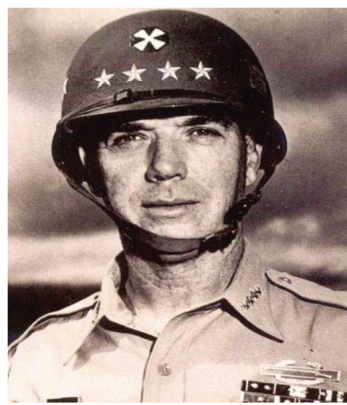
Never Ending Story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다큐영화 (제작참여)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준  
180 만명의 미국군용사들중, 34,000 전사자들과 13만 부상 군인들,  
그리고 3,700명의 실종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40구의 유해들...

아울러, 이들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현재 4개국 (한,미,러,중) 현지 촬영중이며,  
이번 6.25 71주년때 상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제작후원을 바랍니다. (감독 윤학렬)



\*\* 후원과 문의는 아래 미국 공동제작자인 기드온동족선교회로 해 주시면 되고, 모든 후원자와 단체의 명단은 영화자막에 게재합니다 \*\*



# 자신을 보호하면, 타인도 보호합니다.

나 자신과 주위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며, 차례가 되면 백신을 접종받으십시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지고 있습니다. COVID 확산을 늦추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하신 물품을 최대한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cdc.gov/coronavirus](https://www.cdc.gov/coronavirus)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